



Catholic
Archdiocese
of Adelaide

목회서한

2026년 대교구 시노드를 위한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 21-22)



ARCHDIOCESE OF ADELAIDE

**SYNOD
2026**

togetherontheway.au

애들레이드 대교구의 하느님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올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초대 교회가 불과 바람 속에서 탄생했던 그 놀라운 순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주교로서 희망과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해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6년 대교구 시노드를 앞두고 있으며, 희년의 순례 여정을 함께하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님의 선출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이미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 새 교황님을 통해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1. 서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건네신 인사입니다. 그분께서는 부활 첫날 저녁,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1-22)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성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하느님의 사명을 향한 강한 추진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과 겸손, 봉사와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파견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교회인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우리 대교구가 준비하는 시노드 여정도 단순히 어떤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 모습을 살아가는 여정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파견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는 2026년 대교구 시노드를 준비하며, 호주의 전국 평의회 (Plenary Council)와 교구 차원의 여러 모임들을 되돌아보고, 새 교황님의 목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2. 성령의 숨결과 교회의 사명

요한복음의 장면은 매우 친밀합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상처 자국을 지닌 몸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파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는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순간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내시는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숨결은 단지 부드러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바람이며, 하느님의 숨결이 인류 역사 속에 다시 불어오는 순간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곧 교회가 성령 안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제도나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 정의의 표지가 되도록 파견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제안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안락함이나 두려움 속에 갇힌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세상은 분열과 불평등, 생태적 위기와 영적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이끄는 사람, 치유의 도구,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3. 시노달리타스(Synodality): 함께 걷는 성령의 백성

최근 몇 년간, 보편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시노달리타스’, 곧 ‘함께 걷는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시노달리타스를 “제3천년기를 살아갈 교회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애들레이드 대교구도 이미 세 차례의 대교구 회의를 통해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들은 기도 안에서 귀 기울이고, 함께 식별하며, 담대하게 꿈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사로 주어진 은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세례 받은 이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자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열린 전국 평의회 또한 이러한 성령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닌, 영성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겸손과 회개, 그리고 하느님의 예기치 않은 방식에 마음을 여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입니다. 빠른 해답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깊은 초대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4. 2026년 대교구 시노드를 향하여: 새로운 성령 강림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

2026년 대교구 시노드를 앞둔 지금, 우리는 갈림길이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 충실한 교회, 곧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 충실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노드는 깊이 있게 경청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하느님의 말씀에, 서로에게, 그리고 땅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평신도와 성직자의 공동 책임을 어떻게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 가정과 혼인, 사제 성소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상처 입은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환대할 것인가?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살피며 지켜야 할까?

이 질문들은 단지 이상론이 아닙니다. 이는 깊이 있는 영적 질문이며, 실천적인 과제입니다. 겸손과 식별, 공동체적 삶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노드는 단발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시작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 지역 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성령 강림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5. 새로운 교황, 새로워지는 교회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는 지속성과 쇄신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즉위 미사 강론에서 교황님은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내린 그 성령을 다시 언급하시며, 교회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노달리타스가 단순한 새 흐름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길이라는 것을 되새겨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성령의 예기치 않은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지는 길입니다.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하의 유산을 이어가되, 단순한 반복이 아닌, 더 깊은 친교와 참여, 선교의 길로 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쉬운 시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교황님의 선출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쇄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애들레이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용기와 창의성,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6. 성령 안에서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파견을 살아가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사명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파견된 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곧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미 받은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파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세례와 견진 때 받은 분이며, 교회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식별을 도우시며,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시노드를 준비하며 보내게 될 이 시간 동안, 우리 각자와 공동체는 성령의 은총이 더욱 깊이 자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시노달리타스의 길이며, 제자도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흩어진 이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순례 공동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7. 맺음말: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은 부활 시기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는 온 세상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다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십니다.

이 성령을 거부하지 맙시다.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걸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 창과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다.

그리고 파견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본당, 이웃, 학교, 일터, 사회의 가장자리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진리, 정의의 언어로 소통합시다. 복음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나누며,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읍시다.

고대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충실한 이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사랑의 불을 지피소서. 주님의 숨결을 보내소서. 온 피조물이 새로워지고, 땅의 얼굴이 새로워지리이다.”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이, 우리가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시노드를 향하여, 쇠신된 교회를 향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 Pat O'Regan

+Pat O'Regan

애들레이드 대교구장

2025년 6월 8일



ARCHDIOCESE OF ADELAIDE

**SYNOD
2026**

togetherontheway.au



Catholic
Archdiocese
of Adelaide

39 Wakefield Street,
Adelaide, SA 5000

GPO Box 1364
Adelaide SA 5001

8210 8210
cco-reception@adelaide.catholic.org.au
adelaide.catholic.org.au